

광주·전남 FTA 무역피해 기업 속출

유럽산 직격탄 화학업체 1곳 인정...돈육·화장품 업체 등 6곳 피해 신고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무역 피해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화학업체는 EU(유럽연합)산 도료경화제가 밀려들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돈육·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의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도료경화제를 생산하는 전남지역 화학업체 A사는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또 돈육가공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 6곳도 'FTA 피해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했다.

A사는 지난해 상반기 13억2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한·EU FTA 이후 도료경화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5억8800만원으로 55.6% 급감했다.

A사는 이같은 무역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지경부는 지난 4일 A사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했다. 광주·전남 무역업체로는 처음으로 FTA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역 업체들의 무역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전남지역 A사는 한·미, 한·EU FTA 체결된 이후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했다며 무역피해 구제 신청을 했다.

돈육 가공업체 C사와 D사도 미국과 EU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로 매출이 17% 줄었다고 피해 신고를 했다.

돈육업체 관계자는 "한·EU FTA 체결 1년이 지나면서 업체들의 피해가 겹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앞

으로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지역 발전기 생산업체 E사와 배터리 제조업체 F사, 화장품업체 G사도 미국·EU·아세안과 체결한 FTA로 수입 제품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수출 기업들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피해 입증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지원 받은 기업은 11곳, 노동자는 8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정부 예측결과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2007년 이후 총 46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집행액은 12억8700만원으로 27.6%에 그쳤다.

박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화 시대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FTA 체결에만 속도를 올리고 피해대책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역조정지원제도=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건설 등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EG건설 광주 선운지구 아파트 688가구 분양

오늘 1·2순위 청약

EG건설은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에 'EG the 1' 아파트 688가구를 공급한다. <조감도>

EG the 1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0~84㎡ 1200가구로, 선운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다.

EG건설은 이 중 5블럭 70㎡(28평형) 112가구, 73㎡(29평형) 114가구, 84㎡(33평형) 152가구와 7블럭 70㎡ 45가구, 84㎡ 265가구 등 총 688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각 방의 디지털 온도조절기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친환경 예코 아파트다. 또 친환경벽지와 마감재를 사

용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선운지구는 생활편의 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선운지구는 총 면적 62만1550㎡로, 평동산단·빛그린산단·진곡

산단 배후주거지로 투자 가치가 높다. 특히 황룡강과 어등산의 빼어난 수경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요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무진대로·광주제2순환도로·무안~광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시내의 물론 전국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광주공항과 KTX 송정역 이용하기도 쉽다. 지구 내 상업 시설 이용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



져 있다.

EG건설은 25일 1·2순위, 26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1일(7블럭)과 2일(5블럭)이며, 계약은 11월7~9일 진행한다.

모텔하우스는 서구 광천동 광천4거리와 광천파출소 중간에 위치해 있다. 분양 문의 062-368-88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스텍·픽슨·애니체 등 지역 3사 제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선정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이 만든 가습기와 강판, 회전의자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4일 주식회사 에스텍의 '천정매립형 기획식 가습기'와 (주)픽슨 'HPL 파형강판', 애니체 '허리지자용 사무용 회전의자' 등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이 내놓은 3개 제품을 비롯해 53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양 소재 주식회사 에스텍의 '천정매립형 기획식 가습기'는 물을 자연증발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기획 가습 방식을 채택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했으며 가습용수 순환을 통해 세균번식을 억제해 자연친화형 제품

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광양에 있는 (주)픽슨이 개발한 'HPL 파형강판'은 일반 파형강판에 방사형 필름을 코팅한 내충격제품으로 운반·시공때 발생하는 찌김 현상을 없애 제품 수명을 크게 늘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애니체가 내놓은 '허리지자용 사무용 회전의자'는 A자형 토션 스프링에 의해 등받이가 하리전체를 받쳐줘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준다.

이번에 3개사 3개 제품이 조달우수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조달우수제품 수는 모두 38개로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Nikon 1 V2 출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홍보 도우미들이 니콘의 새 렌즈교환식 카메라 Nikon 1 V2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니콘은 Nikon 1 전용 액세서리 '스피드라이트 SB-N7', '렌즈 AF-S NIKKOR 70-200mm f/4G ED VR'와 통신 액세서리 'UT-1'을 함께 선보였다. /연합뉴스

9월 전월세 거래량 8월보다 9% 줄어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예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셋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4일 국토해양부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9만5682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4% 감소했다.

지난 8월의 10만5111건에 비해서도 9% 줄어든 수치다. 7~8월 여름방

학 이사철이 끝난 뒤 9월에 전세계약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5343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6.2% 감소했다. 서울은 3만235건으로 6.7%, 강남 3구는 5644건으로 3.9% 각각 감소했다. 지방도 3만333건으로 6.8%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4만8819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

각 4.8%, 7.9% 감소했다.

계약별로는 전체 주택의 경우 전세가 6만2700건으로 65.6%, 월세(보증부 월세)가 32만9000건으로 34.4%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전세 3만4300건으로 73.3%, 월세가 1만2500건으로 26.7%다. 전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서울지역 전셋값은 상승세를 보인 곳이 많았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침체 내년까지 지속된다

4대강·혁신도시 마무리...대형 국책사업 공백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4일 '2013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내년 국내 건설업체 수주 실적을 올해보다 1.3% 증가한 111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에서는 4대강 사업과 행정·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돼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민간건설경기 역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 건설시장은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와 지방 부동산시장 호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하는 등 반박 회복세를 보였지만 하

반기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 감소, 주택경기 침체 확산세 여파로 8.7% 감소할 전망이다. 협회는 전했다. 올해 총 수주 실적은 110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올해 하반기 주거용건축 수주가 작년보다 28.7% 감소하는 등 불황이 계속될 전망이다"이라며 "업계는 내년도에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도 "세계 각국 정부가 긴축재정을 실시해 글로벌 경제나 건설시장의 성장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위기는 앞으로 3~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13.96 (-12.85)
코스닥지수	524.35 (+0.20)
금리 (국고채 3년)	2.81% (-0.01)
원·달러 환율	1,103.60원 (+0.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산단소 호남본부 오늘 '광주 산업단지의 날' 행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이현수)는 25일 오후 5시 광산구 중앙호수공원에서 첨단·평동·하남산단 등 광주지역 주요 산업단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새터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주 산업단지의 날'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정부와 산단공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초청가수·댄스팀 공연, 즉흥 댄스 경연 등이 열린다.

특히, 첨단·평동·하남산단 근로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8개 팀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슈퍼스타 장기자랑'을 열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춤, 연주 등을 선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참깨 화진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붓고된 묘, 개인이가족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뿌리과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차지번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